

한국전력공사

울릉도 남양내연발전소 1·2호기 준공 전력부족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4월 25일 울릉도의 전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95년부터 울릉군 서면 남서리의 9천여평 부지에 건설해 온 남양내연발전소 1·2호기 준공식을 가졌다.

95년에 착공하여 1백억 5천만원의 공사비를 투입, 준공된 1,500 kW급 2기의 남양내연발전소는 울릉도가 관광명소임을 감안하여 냉각수 방류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냉식 냉각방식 채택,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방염기기 설치등 환경친화적 발전소 건설에 역점을 두고 건설되었다.

한편 만성적인 전력부족 현상을 겪어오고 있는 울릉도에 이번 3,000 kW급 남양내연발전소가 준공됨으로써 이 지역의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인수기지 3차 확장공사 추진 20만㎥급 LNG저장탱크 건설

한국가스공사는 장기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적인 공급설비 확충을 위해 인천인수기지내 대용량 LNG저장탱크 4기를 오는 2003년 8월까지 건설한다고 밝혔다.

인천인수기지 3차 확장공사는 총 5천5백 35억원을 투입, 인천기지내 2만평부지에 20만㎥급 지하 LNG저장탱크(15~18호기) 및 BOG압축기,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게 된다.

이 공사는 금년 6월부터 오는 2003년 8월까지 75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공사발주는 내년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인수기지 3차확장 사업추진이 정부의 민자발전 추진과 도시가스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이 설비가 확충되면 장기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산업 발전 대토론회 개최 국내 자원산업 활성화방안 모색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지난 5월 28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원산업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침체된 국내 자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한준호 통산부 자원정책실장을 비롯해 이병길 대한석탄협회 회장, 강필중 한국자원연구소 소장, 김용구 대

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등 관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趙鍾益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의 국내 광업현황은 생산원가 상
승 압박과 에너지의 수요패턴 변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면한 광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
고 향후 자원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李知憲 광진공 국내자원본부장은
「자원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
내자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존 유망
지역의 탐사를 적극 추진, 경제성 있는 매장
량을 확보하고 광산현대화의 확대 추진을 통
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大 자원공학과 申芳燮교수는 「비금속
광물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에서 국내 비금속
광물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국제적으로 경쟁
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처리가 가능한 광물정제 프로세스가 제안돼
야 하며, 처리시설부터 다양한 제품이 지속
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설비시설이 적용 검
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림엔지니어링(주)

인도 석유화학 플랜트공사 턴키수주

年産 41만톤 1억6천만달러 규모

대림엔지니어링은 인도에서 1억6천만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했다.

한편 대림엔지니어링은 인도 할디아社가
발주한 폴리프로필렌과 고밀도 폴리에틸렌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해 인도 캘커타에 있
는 할디아 본사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대림엔지니어링은 이번 플랜트공사를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을 포함해 턴키베이스로 수
행하며 99년 5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할디아社의 폴리프로필렌과 고밀도 폴리에
틸렌 플랜트는 인도 캘커타지역 동남쪽 1백
40 km에 있는 웨스트 벵골주의 석유화학단
지에 들어서게 된다.

이 두 플랜트는 각각 연산 21만t과 20만t
규모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원료는 자동차부
품 포장필름 파이프 전기기구의 제조에 쓰인
다.

대림엔지니어링은 94년 인도시장에 처음
진출해 지난해 11월 하지라 가스확장공사를
완공했으며, 현재 뉴마리가 발전소 공사와
카암쿨람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등 인도에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금년 4월 인도 현지법인인 DECIL
社를 신설해 이를 거점으로 인도 및 중동 시
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 배움터 에너지관리 연수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자 열띤 호응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 기반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한 「에너지관리 연수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속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동안 경기도 용인의 한화프라자에서 개최된 산업체 에너지관리 실무자 대상 합숙교육을 시작으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에너지담당 공무원 교육이 이어졌다.

또한 6월에는 에너지관리자 및 경영자들이 참여하는 교육도 예정돼 있어 전국의 에너지 분야 공무원 및 산업체 실무자·관리자·경영자들이 모두 연결된 에너지교육으로 자리 잡게돼 연수교육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에너지절약과 환경, 신재생 에너지기술, 안전관리등 에너지관련 전문영역을 기초로 조직문화의 이해, 직장예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창의력 개발등 최근의 시대변화에 대응한 내용을 접목시킨 가운데 레크레이션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로부터 재미있는 전문교육이라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내용과 진행방법등을 더욱 다양화하여 한층 심도있는 연수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한화에너지(주)

미생물활용 생물학적 복원기술 개발

오염된 토양 완전 복원 가능

한화에너지는 석유류로 오염된 토양을 미생물을 이용해 완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환경산업에 본격 진출키로 했다.

한화에너지는 모두 30여억원을 투입, 3년간의 연구 끝에 최근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미생물계면활성제를 이용해 생물학적으로 복원하는 기술을 비롯 오염도 평가·분석, 그래픽 및 모델링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미생물계면활성제를 활용한 생물학적 복원기술이 개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에너지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최근에 실용화된 신기술로 국내 주유소의 경우 1~3개월이면 토양오염을 완전 복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평가 및 복원사업시장이 이미 10년전부터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매년 5백억원

이상 성장을 거듭해 2000년에는 1천5백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기술(주)

한전·한중등과 기술사용협정 체결

국내관련사 긴밀한 기술협력 유지

한국전력기술(주)는 지난 5월 15일 한전 본사 11층 회의실에서 한전, 한국중공업, 한국원전연료, 한국원자력연구소, ABB-CE사와 기술사용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 체결은 원전설계 기술자립 1차 목표(95년도 95%)가 달성되었고, 미국 ABB-CE와 체결·유지하던 기술도입 계약이 97년 5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원전건설 및 수출시 기술제공사인 ABB-CE사와 국내 관련사가 긴밀한 기술협력을 하기 위해 기술사용 협정을 체결하고 실시권을 관련사와 한국전력공사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은 이 기술사용 협정 체결에 따라 앞으로 NSSS 및 관련 계통설계

기술과 계측 및 제어계통 기기설계 기술, 그리고 System 80+ BOP 계통기술 자료 등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설계 실시권과 국내·외에서의 비독점적 제품 판매권 등을 갖게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97 가스사고 조사 세미나 개최

가스사고 조사 중요성 인식 제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삼성동 소재 섬유센타 대회의실에서 가스·소방분야 관계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7 사고조사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고 조사업무 수행에 있어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대내외적으로 가스사고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국제적 환경변화와 가스사고조사 기법의 도입방향, 일반화재 사고와 가스사고의 특징, 사고원인 수사기법 및 방향, 가스사고 조사 현황 및 분석, 가스사고조사 기법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金外坤 사고조사처장은 「가스사고조사 현황 및 분석」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모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책은 과거의 사고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며 「더욱 진보된 안전관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을 철저히 분석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정확한 원인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유 공

미국에 유전개발 전문회사 설립 추진
미주지역 석유개발 사업 참여

(주)유공은 미국에 유전개발 전문회사를 설립, 미주지역 석유개발사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유공은 미국 휴스턴에 자본금 2천4백만달러의 유전개발 전문회사인 「SK Resources, Inc」를 설립키로 하고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미주지역 유전개발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공은 우선 현지법인을 통해 미국의 유전개발 전문회사인 만티社와 지분매입 계약을 체결, 만티社가 개발중인 미국 텍사스 지역 3개 광구 지분의 49%, 루이지애나 지역의 2개 광구 지분의 60%등 모두 2천4백만달러 규모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며, 현지법인에 프로젝트의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이들 5개 광구의 총매장량은 원유로 환산했을 때 1천1백만 배럴 규모로 정부의 투자승인을 받게되면, 유공은 하루 평균 3천2백배럴의 원유 및 가스를 생산,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유공은 현지법인에서 얻은 수익 전부를 현지에 재투자해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오는 2000년까지는 독자적으로 광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유공은 이번 광구 참여를 포함하여 모두 11개국 25개 유전광구와 예멘 등 2개 LNG(액화천연가스) 광구에서 자원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지난해 전체 유전개발 투자비의 1백46%에 해당하는 6백63억원을 벌어들인 바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역 난방열공급 시설 준공
1만6천호 지역난방 열공급 개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월 30일 대구 지역 난방열공급시설을 준공하고 달서구 관내 1만6천여호에 지역난방 열공급을 시작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구시 달서구에 지난 94년 6월 공사에 착공, 2만3천여평의 부지에 1백76톤 주보일러 1기, 44 MW급 터빈 1기, 열전용보일러 2백톤 2기등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1천5백억원을 투자해 건설했다.

열공급시설은 최대 3백63G/H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2001년까지 신규 개발되는 아파트 약 7만8천호에 열을 공급할 계획이며 과학단지, 삼성상용차등 산업체에 증기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건설된 열병합 발전소는 추기배압 복수식으로 여름철 지역난방 열사용량이 적을 때 발전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건설됐다.

한편 대구의 지역난방 개막으로 향후 에너지절약과 함께 이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종합제철(주)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HBI공장 착공

年産 1백50만톤 규모 99년 완공

포항종합제철(주)는 지난 5월 베네수엘라 가이아나시 푸에르토 오다즈공단 현지에서 연산 1백50만톤 규모의 HBI(Hot Briquetted Iron) 공장을 착공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라파엘 칼데라(Dr. Rafael Caldera)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비롯해 金鍾振 포철 사장과 이춘호 부사장, 베네수엘라 CVG 이나티 총재와 FMO社 차바리 사장, 미국 레이시온社 밀러 회장, 멕시코 힐사 킨테로 사장 등 관계자 2백20여명이 참석했다.

연간 1백50만톤의 HBI를 생산하게 될 POSVEN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오다즈공단 내 5만2천평의 부지에 착공, 99년 4월 완공되며, 포항제철(포스코개발, 포스틸포함) 60%, 동부 USA 10%, 현대종합상사 5%등 한국측에서 75%, 미국 레이시온사 10%, 베네수엘라 FMO 10%, 멕시코 힐사 5%등 외국회사가 25%의 자본비율로 참여해 총 3억3천4백50만달러를 투자한다.

POSVEN 설비는 지분 참여사인 멕시코 힐사가 개발한 것으로 일본의 고베제강이나 호주 BHP사가 채택하고 있는 설비보다 건설기간이 짧고 원가가 싼 최신 설비이며, 시공은 포스코개발과 미국의 레이온사가 컨소시엄으로 맡는다.

포철은 이번 합작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투자지분에 따라 연간 1백5만톤의 HBI를 들여와 광양제철소에 건설중인 제2미니밀의 원

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고철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철 대체철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한층 더 경쟁력 있는 미니밀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주)

칠레 LPG운반선 명명식 거행

금년 6월부터 본격 운항 개시

현대중공업(주)는 지난 5월 16일 미포조선소 제9안벽에서 칠레 울트라가스(ULTRAGAS)社에서 주문받아 건조한 7천2백³급 LPG선에 대한 명명식을 가졌다.

현대중공업측 대표와 선주측 스펜 폰 아펜(MR·SVEN VON APPEN)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명명식에서 이 선박은 스펜 회장 며느리인 지베나 폰 아펜(MRS·SIMENA VON APPEN)여사에 의해 「해피 비」(HAPPY BEE)호로 명명됐다.

「해피 비」호는 길이 1백13.5m, 폭 16.5m, 높이 8.75m 규모로 현대중공업이 자체 제작한 5천7백마력의 엔진을 탑재, 16노트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으며, 이달의 의장작업을 마무리 6월부터 본격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트라가스사는 LPG 원유, 정유, 벌크류의 수송을 수주하고 있는 칠레 소재 독일계 선박회사로 현대중공업과는 이번이 첫 거래이다.

LG칼텍스정유(주)

2005년까지 10조투자 고도화시설 증설 고객만족도 세계 최고수준 향상

LG칼텍스정유는 셀프주유소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유소편의점을 확충하는 등 유통부문 서비스 강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5년까지 모두 10조원을 투자, 각종 고도화시설을 증설하고 고객만족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LG정유는 지난 5월 19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주유소 서비스강화와 시설고도화를 골자로 한 신경영정책과 21세기 비전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00년까지 전국 주유소에 셀프주유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까지 셀프주유시스템을 전국 3백여개 직영주유소에 도입해 휘발유는 ㄹ당 30원, 경유는 20원의 할인혜택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주유소 편의점인 「LG스타」를 올해안으로 60곳이상 개점하고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3백개 주유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차량무료점검과 부분정비 프랜차이즈인 「오토오아시스」를 올해말까지 5백개, 2000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계열주유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LG정유는 21세기 비전에서 오는 2005년까지 1인당 생산성 세계 1위를 달성하고 고객만족도를 세계 초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려 초우량 정유 및 석유화학회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한국중공업(주)

첨단기술 확보위한 전략품목 개발착수 2001년까지 4천4백억원 투자

한국중공업은 21세기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전략품목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한중은 전략품목 개발을 위해 2001년까지 총 3천6백여명의 기술인력과 4천4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한중이 선정한 10대품목은 저공해 고효율 석탄연소설비, 폐기물 유리고화설비, 터빈발전기 독자모델, 구조물 폭파해체공법, 담수설비 설계기술, 조합형 전기집진기, 플라즈마 탈황탈질시스템, 크레인 신모델, 시멘트 플랜트 설계기술, 가스연료 인텔리전트 엔진 등이다.

이 품목들은 환경·에너지 등 첨단기술 제품으로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미개척 제품들이다.

특히 폐기물 유리고화 설비는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부피를 현저히 줄여 저장용량을 늘리고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 제품이다.

또 조합형 전기집진기나 플라즈마 탈황탈질시스템은 각종 화력발전소 배출가스에 함유된 환경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그린발전소 건설을 가능케 한다.

한중은 10대전략품목을 개발, 21세기 세계 5위의 산업플랜트업체에 진입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97 깨끗한 상수원 지키기 현장 캠페인 환경보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팔당댐 하류 한강둔치에서 깨끗한 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상수원 보호운동에 대한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97 깨끗한 상수원 지키기 현장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찬하여 대대적으로 펼쳐졌으며, 강현욱 환경부 장관, 임정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 및 부대장병 그리고 인기연예인등 3천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 모두는 한강 상수원 지키기를 직접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林井圭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질오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물을 깨끗이

보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삼성엔지니어링(주)

印尼 5억달러 규모 건설프로젝트 수주 세계 최대 카프로락탐 공장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카프로락탐 생산공장 건설프로젝트를 따냈다.

인도네시아 가자통갈그룹이 발주한 총 5억 달러 규모의 세계최대 카프로락탐 생산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독일 루르기사와 공동수주, 지난 4월 22일 자카르타 현지에서 삼성엔지니어링 梁仁模 대표와 누르살림 가자통갈그룹 회장, 페르쉬 루르기사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식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자클라디 아조토프사를 기술선으로 해 공정설비는 삼성과 루르기사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전기 공업용수 등 유틸리티센터는 삼성이 단독 수행하는 대형 국제협업 사업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프로젝트 수행으로 최소 2억달러 이상의 몫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00년 완공될 공장은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지역에 건설되며, 연간 12만톤의 카프로락탐과 부산물인 암모니움 설페이트 및 질산을 생산하게 된다.

카프로락탐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화학 섬유산업의 원료인 폴리아마이드 필라멘트와 스테이플 파이버 등의 주요 원료이다.